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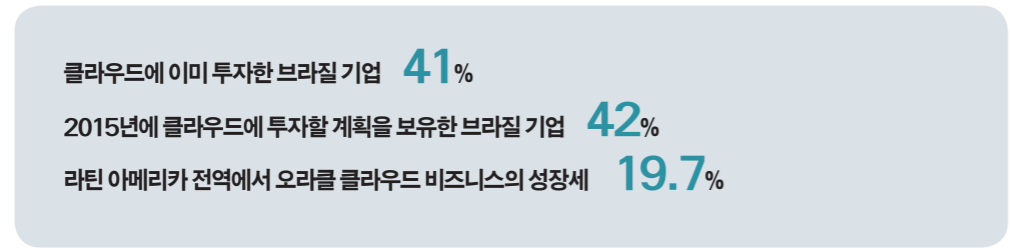
Global Cloud Trend :

우려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로
움직이는 브라질 기업들



상 파울로에서 열린 Oracle OpenWorld Latin America의 기조연설자들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서비스 경제국인 브라질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IT 인프라의 단순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장 출시 활동과 연계된 모델을 채택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고 있다.

심지어, 경기둔화 직전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브라질 기업들의 결정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 313개 브라질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Frost & Sulliva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기업의 41%는 이미 클라우드에 투자를 집행하였고 42%는 올해 안으로 투자 계획이 있음이 밝혀졌다. Oracle의 마크 허드 CEO는 Oracle OpenWorld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오라클의 라틴 아메리카 지역 내 클라우드 사업이 회계연도 2015년 4분기에 19.7% 증가하였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마크 허드는 올해 8월 상 파울로 캄피나스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데이터 센터는 해당 지역 내에서 증가하는 오라클의 포괄적인 클라우드 오퍼링에 대한 수요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Frost & Sullivan의 애널리스트인 Guilherme Campos에 따르면 브라질 경제가 둔화 - 이전 2분기 동안의 성장에 뒤따른 1분기 GDP 0.2% 감소 - 됨에 따라 브라질 기업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선택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인 CAPEX 모델을 OPEX 모델로 대체하면서 고객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측했다.

1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모델

그러나 브라질 기업이 클라우드로 움직이는 배경에 비용 절감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Constellation Research의 CEO Ray Wang의 기조연설에 따르면 서비스 섹터가 국가 GDP의 70%를 담당하는 브라질에서 클라우드는 서비스 기업이 서비스를 구상, 마케팅, 판매, 제공하는 방향을 재정립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서비스 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온-프레미스 솔루션만 가지고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경험을 제공하고, 또 결과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Ray Wang은 말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기업들은 소규모의 추가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단위 비용 가격 모델을 도입하

“서비스기업은 클라우드를 통해 온-프레미스 솔루션만 가지고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경험을 제공하고, 또 결과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Ray Wang, CEO of Constellation Research

기도 합니다"고 Ray Wang은 말하며 "의료 장비 회사의 최대 수익은 더는 이미징 시스템의 판매에서 오지 않습니다. 유지보수와 지원 부문의 업그레이드와 가용성이 새로운 수익원입니다"라고 예를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클라우드는, 의료 장비 회사에 "항상 가용한(always-on)" 서비스 딜리버리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이 플랫폼은 병원의 수익 신장을 환자당 일일 매출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수입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온-디맨드" 의료서비스의 성장이 괄목할 만한데, 이를 이용하여 "의료 장비 제조사 병원이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추가 서비스 등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2 보안 우려를 잠재우다

브라질에서 클라우드 채택에 가장 큰 장애물은 데이터 기밀성과 전반적인 보안이다.

Frost & Sulliva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브라질 기업은 중앙 집중형 통제를 선호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IT 임원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을 통제의 상실과 동일하게 여긴다. 이들 기업은 더 발전된 수준의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지킬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Oracle OpenWorld Latin America에서 발표한 존 파울러 Oracle 시스템 사업부 수석부사장에 따르면 "정보 보안은 현대의 연결된 인터넷 세상에서 제1의 문제"이다.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하여 존 파울러 부사장은 개발자들이 높은 수준의 안전한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 코드를 설치, 테스트, 개선할 수 있도록 오라클의 SPARC M7 프로세서에서 제공되는 오라클의 Software in Silicon 클라우드의 보안 속성을 설명하였다.

"오라클은 현재 성능 저하 없이도, 승인받지 않은 인-메모리 접근을 예방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클라우드 제공업체입니다"라고 파울러 수석부사장은 말하며 "이 점은 클라우드 운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클라우드 도입의 장애물 중에는 모던 클라우드 서비스가 레거시의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와 잘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기업의 걱정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 부분은 오라클 회장이자 CTO인 래리 엘리슨 6월 22일 오라클이 24종의 새로운 클라우드 플랫폼 및 인프라 서비스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언급되었다.

엘리슨은 제품 출시 발표장에서 오라클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술은 온프레미스 용도로 판매하는 기술과 "완전히 동일한" 기술이며, 기업은 기존 애플리케이션 - 오라클 이외의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 을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그리고 클라우드로 데이터 센터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동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엘리슨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의 공존 세대가 도래할 것"임을 선언하기도 했다.

“오라클은 현재 성능 저하 없이도, 승인받지 않은 인-메모리 접근을 예방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클라우드 제공업체이다”

- 존 파울러, Oracle 시스템 사업부 수석 부사장